

‘으뜸전남 미래전략’ 차기 국정과제 반영 총력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국립의대·해상풍력·COP28 개최

82조원 규모 69개 과제

전남도, 국회·대선후보에 건의

전남도가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으뜸전남 미래전략’은 민선 7기의 전남 비전인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를 위한 8대 추진전략, 69개 과제(핵심과제 34건 지역발전 과제 26건 제도개선 건의 9건) 82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해방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중앙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인한 전남의 기반 시설 미흡, 인구 유출, 경제 정체 등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윤호덕 기획재정부장 등에게 ‘으뜸전남 미래전략’ 69개 과제를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앞으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와 선대위에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시킬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이은 국가 3대 축으로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건설과 함께 광주, 경남, 부산, 울산에 있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또 전남의 미래를 이끌 세 성장동력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그린수소 에너지 섬, 인공태양광핵융합연구소 등 4개 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등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첨단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남해안 탄소소재벨트 등 3개 과제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첨단의료 복합단지, 무안공항 연계 의료특화단지 등 3개 과제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 관광벨트,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등 4개 과제 ▲농어업의 융복합화를 이끌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6개 과제 ▲SOC 분야 서해안 고속철도, 서울-제주 고속철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등 5개 등이다.

32개 핵심과제 중 인공태양광핵융합연구소, 전통문

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등 김 지사의 폭넓은 시야와 그동안의 통찰력이 담긴 새로운 구상들이 눈에 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주요 과제인 RE 100 산업벨트,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 ‘다도해 선산인웨이’ 등을 반영, 다음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할 대표과제로 ▲‘국립의과대학’ 설립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선진국형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도입’ 등을 꼽았다.

이밖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과제 34건과 친환경선박 산업 클러스터 구

축, 국립 보성강 구석기 문화 박물관 건립 등 지역 발전과제 26건,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제도 마련,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9건의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건전한 으뜸전남 미래전략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은 으뜸전남 미래전략이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자체 TF를 운영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22개 시·군과 함께 과제를 준비했다. 지역별 간담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30여 도민에게 ‘으뜸전남 미래전략’ 청사진을 보고하고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 결의를 다졌다. /유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40.1%·이재명 37.0%

리얼미터 조사...오차 범위 접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나란히 불거진 이후 실시된 조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가 40.1%, 이 후보가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6%, 새로운미래 김동연 대선 후보는 1.7% 순이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원전 정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올 3·4호기 국민 판단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합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올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에 안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올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극빈층·못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

“5·18은 자유민주주의 지킨 항쟁”

전북 이어 오늘 광주·전남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호남지역 1박 2일 일정 첫째날인 이날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유는 물질 수준,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개인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윤 후보는 이 대목과 관련해 극빈층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는 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극빈층)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의 지키는 항쟁”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아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사회적 민주

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딱 찍어주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위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둘러봤다.

호남 방문 이틀차인 23일에는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뒤 순천을 찾아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광주와 목포를 방문한 지 38일 만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티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